

조기임신진단으로 생산비 줄이는 석/원/농/장

-이 병 석-

농장에서의 임신진단은 모든의 공태일수를 최대한 줄여서 모든의 분만회전율을 최대로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실제로 모든의 분만 회전율을 계산해 보면 임신기간 114일, 포유기간 21일, 이유 후 교배까지의 기간을 7일로 계산하면 $365 / (114 + 21 + 7) = 2.57$, 즉 이론적으로 2.57번을 분만하게 된다.

농장에서 분만회전율의 성적향상은 그 농장의 수의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분만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임신돈의 조기 임신진단을 통하여 공태돈을 줄임으로 불필요한 사료의 낭비를 줄이게 됨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 하겠다.

이번 호 에서는 임신진단기를 이용해 조기에 임신측정을 함으로써 공태돈을 줄이고, 모든의 분만회전율을 높이 유지하고 있는 석원농장을 찾아가 그 농장의 사양현황과 관리사항 등을 알아 보았다.

2 SITE 관리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석원농장

충남 논산에 위치한 석원농장(대표: 구자원)은 모든의 270두 규모의 전문 비육농장으로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PSY성적은 24.8두이며 모든회전율 2.4회전의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월평균 돼지 550두를 생산해서 출하는 530두 정도를 출하하는 농장이다. 특히 석원농장은 분만에서 비육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분만해서 자돈까지만 기르고 비육은 위탁사육을



◎ 석원농장 식구들

하는 2 SITE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런 연고로 이 농장은 분만사와 임신사, 그리고 자돈사로만 되어 있었으며, 비육돈은 공주, 충주, 조치원에 위치한 비육전문 농장으로 이동해서 사육되어진다.

석원농장과 비육전문농장과의 관리 수수료 등의 계약은 각 농장 돼지의 사양상태와 출하성적에 비례해서 지불되어진다. 보통 자돈이 비육농장으로 옮겨지는 기간은 평균 68.8일(24.2kg)이며, 출하는 평균 162일(103kg)에 출하된다고 한다.

교배는 자연교배와 인공수정의 비율을 30 : 70의 비율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산차관리에 있어서 보통 5산차 이상 모든을 도태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아주 우수한 모든인 경우에만 남겨두는데 5~8산차 까지의 모든 비율은 15% 이내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석원농장 구자원 사장은 전체 모든중 모든의 1% 이상이 임신이 되어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

조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한 체크를 해야한다고 한다.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노산돈의 도태비율을 높여서 노산돈에 의한 분만 사고율을 낮추고자 하였다.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조기 임신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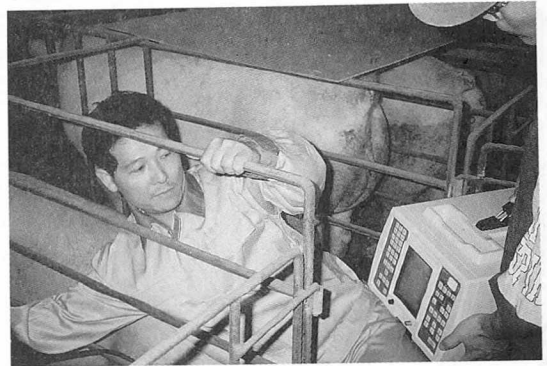
임신진단은 보통 종부후 25일 정도에 체크를 하며 매 1주단위로 임신진단을 한다.

임신진단기는 동도축산을 통해 구입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계는 임신진단하는 시간이 짧고,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신진단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해야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메다타라는 혈류감지를 통한 임신진단기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계는 눈으로 직접보지 않고, 소리를 통해 측정해야 하며, 진단시간이 길고, 기술적으로 숙달이 되어져야 한다. 현재 이 농장에서는 초음파 진단기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임신진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평균 10%정도는 재발이 오고 있으며, 분만 11.7두, 실산자 10.6두, 이유 10두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두수를 12두로 늘리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석원농장에서는 임신진단기를 2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신진단기를 사용하기 이전보다 공태일수가 10일 이상 당겨졌으며, 특히 여름철에 공태일수 폭이 줄었는데 이로 인한 사료비의 절감이 크다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 경제쪽에 치중할 터

석원농장은 하루에 2~3회 소독을 필히 해주고 있으며 산차별 교배방법을 달리하는데 1~산차와 5산차 이후의 돼지에게는 자연교배와 인공수정을 병용하는 혼합종부를 행하고 있었다. 특히 임신진단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은 눈에 보이지



◎ 석원농장 구자원 사장이 초음파 임신진단기를 이용해 임신진단하고 있는 모습

않는 큰 이익이라 할 수 있겠다.

석원농장 구자원 사장은 “현재 우리농장에서 23~24두의 PSY성적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기는 고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초 사양관리는 30~40%비율로 치중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치중하겠다”고 말한다. 앞으로는 현재의 2 SITE 방식에서 자돈까지 별도로 관리하는 3 SITE 형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제성이 맞는 한 규모도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구자원 사장은 “농장주일수록 더욱 개방적이고 계속적으로 신기술을 받아들여 그것을 돼지에게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장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의식개혁과 함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양돈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한다.

모든 270두 규모로 월평균 출하두수를 530두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록에 의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와 농장성적의 향상을 위해서 신기술 도입 등 무단히 노력하는데서 이러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구자원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양돈인의 어둡지만 밝은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